

宗教學科의 教育현황과 전망

尹 以 欽

(서울大 宗教學科)

1. 序論 : 現代 大學體制 안에서의

宗教學科

종교학과는 현대 대학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대 대학체제가 당면한 문제들과 무관할 수가 없다. 현대 대학은 研究와 教育이라는 2대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기능이 현대 대학과 현대 학문을 전근대 사회에서의 그것과 크게 구별해 준다. 전근대 학문은 지식에 앞서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그 주목적이었으며, 교육은 스승과 재자의 사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른바 도제 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대학에서는 학문 분야마다 전문화된 지식체계의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연구와 교육을 한다. 따라서 현대 학문은 개인의 인격 수양에 앞서 표준화된, 좀더 정확하게는 객관화된 수 있는 지식체계의 개발과 전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지식의 객관화에 근거해서 학점을 관리하고 학위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현대 大學制度와 현대 學問은 그 출발에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 의존적이다. 오늘날 엄격한 의미의 학문이 대학 밖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이 서양의 중세나 동양의 전근대 사회에서의 학문활동과 현대 학문이 다른 또하나의 예이다. 서양중세의 신학이나 불교의 교학과 유교

의 도학은 각각 대학 밖에서 일종의 도제제도와 같은 수도과정을 통하여 전수될 수 있었다. 반면에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식체계의 전수를 통하여 현대 대학은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보편화하는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대학은 이제 새로운 이념과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보급하는 인류 사회의 지성적 센터가 되었다.

지성 센터로서의 대학은 인간의 꿈과 이상에 대한 추구,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두 가지 의무를 지닌다. 진리의 추구하고 지식을 통한 사회봉사,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순수이론과 실용주의, 이들이 현대 대학을 건강하게 버티어주는 두 다리이다.

종교학이 대학에 속해 있는 한, 이 두 가지 의무를 지니게 된다. 현대 학문의 한 분야로서의 종교학은 한편으로는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식체계를 통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식이 현대 사회와 문화가 요청하는 데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종교학은 신학이나 불교학과 같은 교의학이 아닌 현대 학문의 2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종교학과는 이러한 현대 學問 精神을 지켜나가는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또 실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교학과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 싸여 있다. 가장 큰 장벽은 종교학과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현대 학문

으로서의 종교학만을 교육하는 곳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있는 종교학과 한 곳뿐이다. 이 점은 제 3절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종교학과가 없는 곳에는 종교학이 성장할 수 없다. 이 외형적인 열악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겨 준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문제들이 야기되면서 종교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불안이 지속되는 동안 종교인구가 팽창되었고, 종교단체가 급성장하였다. 종교의 성장은 국민의 정신적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종교단체들의 도덕적 권위의 상실과 종교인들의 이기적이고 비지성적인 기복행위의 단면을 가져왔다. 급기야는 시한부종말론 집단과 같은 희비극이 일어났고, 그와 유사한 일이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없기에 이르렀다. 종교의 성장은 현대인들이 종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동시에 외형적 성장이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종교의 兩面性을 우리 사회에서는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기피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기피성향은 언론이나 학계,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나타난다. 바로 종교에 대한 기피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宗敎學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종교에 대한 기피현상은 따지고 보면 신학이나 불교학과 같은 특정종교의 교의학이 지닌 도그마티즘에 대한 지성적 대응의 혼란이 우리 사회에 결여된 데서 비롯된다. 도그마티즘이 적어도 현대 지성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고 현대 학문적 태도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심증은 있으나, 종교적 세력에 힘입은 도그마티즘의 주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기피이다.

이러한 知性的 訓練을 하는 길은 오직 종교학을 통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19세기 후반에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일어난 현대 과학이 종교학이었으며, 지금도 이것이 현대 학문으로서의 종교학이 지닌 對社會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교학은 현대 사회에서부터 요청되고, 그에 대한 대응의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종교학을 특정 종교의 교의학과 동일시하는 일반적 태도가 종교학의 필요를 외면하게 하고, 이는 다시 종교학의 성장을 막게 하여 주었다. 이는 또 다시 우리 사회에서 종교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더해 주어서 문화적 악순환의 고리가 풀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던 종교학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의 한국사회에서의 종교학의 현황을 점검하며, 끝으로 종교학과 종교학과의 앞으로의 진로를 조망해 보기로 하자.

2. 宗敎學의 性格과 志向

종교학은 처음부터 인류사회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多宗敎狀況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기독교만이 종교라고 믿었던 구라파 지성계는 중국과 인도의 찬란한 고전 문헌들을 접하게 되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발굴에서 중동의 고대 문화가 구약 성경에 끼친 자료를 비롯하여 조로아스터교의 종말론이 유대교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교도 문화'라고 불리우던 서기 10세기에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의 게르만족의 민속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각성은 인간이 경험한 모든 종교들을 등거리에서 객관적으로 비교연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종교학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막스 밀러는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 것도 모른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만 아는 사람은 결국 종교 자체를 모른다는 뜻이다. 거꾸로 여러 종교를 비교연구할 때만 비로소 개별 종교들의 특성과 종교의 보편성을 동시에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종교학의 기본 태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된다.

종교학은 이처럼 특정 종교의 교리학적 입장에

서부터 독립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하여 현대 학문의 진영에 속한다. 종교학은 19세기에 일어난 심리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근대 학문의 형제로서 크게는 啓蒙主義의 후예인 것이다. 동시대의 독일의 저명한 기독교 교회사학자 하르낙은 “하나만 알면 모두를 안다.”라고 밀러를 반박하였다. 밀러와 하르낙의 주장은 각각 현대 종교학과 특정 종교의 교의학의 입장을 잘 말해주고 있다. 종교학이 다종교상황이라는 역사적 객관성을 보고 있을 때, 교의학은 특정 종교의 세계관의 입장에서 규범적인 해석을 내린다. 종교학이 개방적이라면, 교의학은 배타적이다.

종교학은 개별 종교 전통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들의 차이점을 제 3의 입장에서 밝히려 한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 종교학에 와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종교학적 이론들은 모두 서양 사상의 전통 안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와 그 속에서 형성된 종교경험들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비기독교문화 곧 동양종교를 이해하는 데는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이듬하여 ‘이론적 교구주의’를 종교학이 작성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각성은 21세기를 앞에 둔 우리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현대 대학에서 강의되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들이 서양의 이론적 교구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를 고백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 학문 분야는 종교학 밖에서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현대 학문은 서양 이론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理論的帝國主義가 만연되어 있다.

이론적 교구주의는 비단 서양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전사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유학을 하는 동양학자들은 ‘동양은 정신, 서양은 기술’이라는 관에 박힌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고전적 사고들에 근거해서 현대 문화와 사회문제를 해석한다. 예를 들어 뇌사문제는 현대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장기이식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전혀

신종 사건인데, 이를 새로운 상황과 관계하지 않고 오직 동양고전의 典據에 근거하여 해석하려 한다면, 이는 동양의 이론적 교구주의에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동양인은 동양인대로 특정한 세계관에 얽매어 있다.

현대 사회에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 그 예를 찾기 힘든 다종교사회이다. 예를 들어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가 한국인의 20~25퍼센트를 점한다. 이는 동양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독교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한국은 서양의 학술,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정신문화까지 그 어느 동양 사회보다 깊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양인은 아직도 동양을 다만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지, 그 지성적 태도나 정신적 자세에 있어서 동양은 ‘그저 저쪽에’ 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서양은 이미 그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모두 ‘내 속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사회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이질적인 세계관을 우리 속에 안고 지낸다.

이러한 다종교상황, 곧 중첩된 세계관을 가진 우리는 가치관의 혼돈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의 敎育 現實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각급학교의 입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교육정책이지, 교육의 목표가 제시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는 어떤 교육이념을 갖고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육성하려 하는가? 한 세기 전에 우리 사회는 한성봉으로 대표되는 선비를 기르고 있었다. 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대안없이 파괴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목표없는 교육제도의 운영 기술에 희생이 되고 있다. 결국 서양의 이론적 교구주의의 추종자들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혼돈은 학계에서도 알력으로 나타나서 철학과 역사학이 동양과 서양, 또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만 살림을 하거나 혹은 그러기를 힘쓰기에 이르렀다.

종교학은 이처럼 다원적 가치관과 중첩된 세계관에 의한 복합현상들을 어느 한 세계관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하고 이해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정신적 그리고 문화적 문제

들을 해결하는 길을 찾으려 한다. 한마디로 종교학은 사상적 극지주의를 넘어서 모든 가치관들이 존중되면서도 서로 새로운 관계질서를 유지하는 길을 찾는다. 이를 흔히 多元主義라고 이른다.

예를 들어 중동의 전쟁과 유교의 내전, 그리고 인도에서의 종교간 갈등은 모두 종교적 대립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웅변해 주고 있다. 지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인간이 종교인이다. 따라서 종교들 사이의 대화는 사회의 마지막 대화이고, 종교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질서의 계발은 다원주의의 마지막 만개를 의미한다. 다원주의는 현대사회가 지향점이기 때문에 종교학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질서를 창조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3. 宗敎學科의 現實

우리나라에서 종교학과는 서울대학이 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에 속해 있다가, 그 후 문리과대학에서 인문대학이 분리되면서 인문대학 내에 있게 되었다. 서울대 종교학과는 크게 네 가지 분야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① 개론 및 교양분야 : 종교학 개론, 인간과 종교, 종교와 문화 등

② 종교현상 분야 : 신화학, 신비주의, 종교제도론, 종교상징론, 종교와 예술 등

③ 종교학이론 분야 : 종교학방법론, 종교현상학, 종교와 과학,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종교철학, 현대종교론 등

④ 종교사 분야 : 일반종교사, 원시 및 고대종교, 세계종교사상사, 한국종교사, 한국민속종교 ; 개별 종교전통 :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및 이슬람교에 관한 다양한 강의

위의 4분야는 크게 종교사 분야(④) 및 종교학이론 분야(①②③)로 대별된다. 필수과목은 학부 학생들로 하여금 위의 분야들을 고루 신청하도록 짜여져 있으며, 특히 대학원에서는 종교사와 종교이론 분야를 중심으로 논문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위의 교과목 편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울대 종교학과는 객관적 지식을 쌓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고루 혼련받도록 하였다. 교과목 편성의 균형성에 있어서는 세계의 어느 종교학과의 그것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다만 현재 종교학과에는 4명의 교수가 있는데, 이들만으로는 위에서 보는 방대한 종교학의 분야들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강사들을 초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종교학은 인류가 경험한 모든 종교를 균형있게 이해하고 그들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종교학도는 무엇보다도 그 방대한 연구자료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원숙한 종교학자를 양성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종교전통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동시에 종교이론 분야에 대한 혼련을 받아야 한다. 불교나 유교 또는 기독교 중 하나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치는데, 이들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지극히 제한된 교수진이 종교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교수의 연구 차원에서는 다양한 종교학의 인접분야(자 종교 전통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관계를 근거로 하여 종교학을 전개하는 데 크게 제한되고, 학생들로서는 편향된 혼련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수의 확대가 이러한 점에서 절실하다.

1981년 서강대학에 종교학과가 설립되었다. 현재 학부학생을 매년 30명씩 모집하며, 이 학과의 교수는 모두 10명이다. 이 가운데 종교학은 2명이고, 나머지 8명이 카톨릭 신학자들이다. 이 학과는 “종교학과 신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한국종교들과 그리스도교의 상호 대화의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학과 교수의 비율과 그 설립취지가 서강대학교의 종교학과가 지닌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학과는 종교학과 카톨릭 신학이라는 두 개의 분야를 혼성된 것이어서 현대 종교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하여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1990년에 효성여대에 종교학과가 신

설되었다. 학과의 성격을 “종교학과는 효성여대의 설립목적에 따라 카톨릭계단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학과이다.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 귀한 인생관과 가치관의 바탕을 심어줌으로써 참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힌 대학안내서가 그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학과는 현재 2명의 신학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학과는 아직 형성의 초기이지만 그 설립 취지가 앞으로의 성격을 짐작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하여 준다.

서울대학 이외에 카톨릭 계통의 두 대학이 종교학과를 운영하지만 순수한 종교학을 기대하기는 그리 낙관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종교학은 이 땅에서 매우 영세한 상태에 있다.

4. 結論 : 宗敎學의 活性化

앞에서 우리는 종교학이 영세한 이유가 종교에 대한 언급의 기피성향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기피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기피는 각 종교들의 독단론적 태도를 부추기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신학교는 약 300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것은 60여 개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고등교육 기관보다 무인가신학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종교들 역시 많은 무인가 교육기관들이 있다. 이처럼 엄청난 종교교육기관에서 각각 獨斷論的 敎育만을 시키고 있다.

개별 종교들이 독단론에서 벗어나서 현대 지

성과의 교감을 통하여 사회에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종교학이 각 신학교와 승가대학, 그리고 종교 교직원 양성학교에서 교육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종교들이 기복에 매달리는 비지성적 늪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데 공헌하는 길이다. 바르 이점이 우리 사회에 종교학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사회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학은 자신의 세계관이 제일이라는 독단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신념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훈련을 시킨다. 이러한 知性的 自己反省의 태도를 훈련시키는 데 종교학은 그 어느 학문분야보다 탁월하다. 따라서 현재 제도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종교과목(선택과목)이 중립학교의 교리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종교학 교육의 차원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중·고등학교에서 종교과목을 담당하는 종교교사의 양성과정에서도 종교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부의 증무실과 각종 공공기관의 종교업무 담당관들과 각 언론사에서 종교 담당인들이 보다 전문적인 종교학의 소양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문제와 종교교육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는 종교학자들의 활동이 요청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종교학자가 몇 군데 더 설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능한 한 국·공립대학에 설립되어야 더 바람직하다. ■